

할렐루야~ 어느덧 2026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사역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주요 사역

도도마에서는 변함없이 유치원 사역과 재봉학교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가 마을의 든든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교육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유치원 사역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유치원들은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을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어려운 점은 젊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시골 마을에서 후임 교사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에도 4명의 교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사의 교육을 위해서, 기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 세미나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교사 세미나를 동역하시던 선임 선교사님의 은퇴로 인해 현재 교사 세미나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도도마에 선교센터가 빨리 세워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 아루샤 은지로 유치원 건축



은지로 유치원 예전 모습



은지로 유치원 새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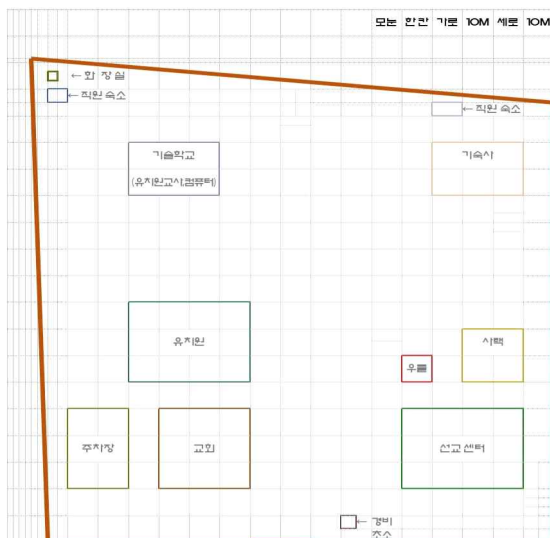
건축의 90%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한국 방문 기간에 공사를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현재 건물만 완성된 상태이고, 지금은 운동장 정비와 교실 내 책상, 가구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의 상태 때문에 유치원 폐쇄 권고를 받았던 예전 모습(왼쪽 사진)에서 튼튼한 새 교실과 깨끗한 화장실이 완성된 모습(오른쪽 사진)이 많이 달라 보이시나요? 대규모 공사는 아니라고 해도 이전에 했던 건축들보다 재정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어져서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 이후 이곳에서 이어갈 유치원 교육일 것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골 유치원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사역하는 도도마 9개 유치원과 달리 은지로 유치원은 저희가 운영의

주체가 될 예정입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좋은 유치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도도마 선교 센터 건립 계획

탄자니아 도도마에는 파송 교회인 세신교회에서 마련한 8천평 가량의 선교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 이 땅을 선교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 방문 때에 세신교회에서는 우물 공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셨고, 송내 중앙 교회에서는 선교 센터 건물을 위한 헌금을 시작하셨지요.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참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은지로 유치원 건축을 마무리한 후 선교 센터 설계를 하고, 우물 시추 공사와 건축허가를 받는 것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도도마와 아루샤를 오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탄자니아 어린이 신앙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도마 선교센터 배치도



도도마 선교부지 현재 모습

4. 기도해 주세요

- ① 탄자니아 감리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 ② 유치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어린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이 어린이들이 교회 성도로 잘 자리 잡게 되도록
- ③ 음곤도 재봉 교실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 ④ 아루샤 은지로 유치원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 ⑤ 도도마 선교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물 시추가 한 번에 성공하기를
- ⑥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